

지역 매 아 리

규제혁신, 전국 군단위 1위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10월 7일까지 모집

김제시는 김제만의 매력과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발굴하고 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한다.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는 김제시와 관련된 시청 미담, 생활·공익정보, 감동스토리 등을 발굴하고 관광명소, 먹거리, 축제·행사 등을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고 민원이나 시민 의견을 시에 전달하기도 한다.

서포터즈 지원자격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활발히 운영 중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는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10월 11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글이 채택된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SNS를 활용, 시민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프러스친구, 인스타그램 등 4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시장 홍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김제시는 2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김제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통합방위 주요성과와 2020년 주요 훈련계획을 보고하고 국가보훈처 및 군부대의 안보 동영상을 시청, 지역에 대한 안보와 재난대응태세를 굳건히 확립하는 계기를 가졌다.

2019년 통합방위 주요성과로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민, 관, 군, 경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성공리에 실시하였다.

2020년 주요계획으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연 7회 이상 실시하며, 민방공대피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및 지역특성화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등, 5월에는 을지태극훈련을 민·관·군·경 협조체제하에 실시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민방위유공 대통령 기공표창을 수상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각 기관·사회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큰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인센티브 4000만원 수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완주군의 노력이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23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인센티브 40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가 83

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완주군은 올해 개정을 이끌어낸 '수소연료전지 국가 표준' 건을 제출하여 당당히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했다.

이 사례는 지게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가진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가표준을 개정해낸 것이다.

완주군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93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2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런 기대 효과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작성한 관련 최종용역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더 나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규제혁신 1번지 완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 전국 1위,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지방규제 혁신 인증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개혁 분야 전국 선도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서울 청년이 완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

완주군, 총 10개 팀 22명 선정... 사업비 서울시 전액 지원

서울 청년들이 완주군에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청년들이 행복한 완주군에 머물며 창업을 기획한 후 아예 체류하거나 서울에서 창업을 하려는 상생 행보의 일환으로서 비상관심에 쫓긴다.

23일 완주군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기회 및 실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모집과 선발절차를 거친 최종 10개 팀 22명을 선정했다.

이들 청년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

지 오리엔테이션과 로컬캠프를 통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 청년들은 앞으로 2개월간 사업 아이템 발굴,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자원조사 기간과 6개월간의 창업 모델 시범운영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교통 등 실비지원과 초기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고, 사업모델이 검증된 팀은 최대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완주군은 선정된 청년에게 주거공간 지원, 지역현장 창업캠프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지역 정착청년과 지역창업자와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참여자를 지원한다.

완주군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주요 아이템은 지역로컬푸드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지역테마 여행관광상품,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생산물 수요공급 및 배송시스템 구축 등 지역기반의 개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서울청년들의 지역유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며 "향후 지역과 서울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축제 현장 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3일 벽골제에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 현장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다가온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현장보고회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허전 부시장, 국장, 실과소 읍면동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장 배치 현황과 관광객 동선 등 프로그램을 맡은 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으며 벽골제 입구에서부터 제방까지 주요 행사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태풍으로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했다.

주 무대가 될 상룡광장과 체험부스 등 임시 시설물 안전 점검과 축제장진·출입로 및 주차장 설치 현황, 원평천 부교와 인공섬 주변 폭 식재 및 산책로 등을 세세히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했다.

또한 축제장뿐만 아니라 축제장까지 오는 길에 대한 자세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셔틀버스 운영 철저 등 관광객 이동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소에 당부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우리 김제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다. 지평선축제를 찾아 온 관광객이 보다 편하고 즐겁게 관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분야별 맡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더 점검해보고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벽골제 및 시내권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5개 분야 68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온가족 웃음 가득한 110여가지 체험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가을날 멋진 추억과 낭만을 선사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김제시가 정보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9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서 김제정보화농업인연구회 최우수상

시, 농업인 정보화교육 과정 연중 운영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제시 정보화농업인 연구회(회장 조도현)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최근 김제에 위치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린 제9회 전북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주관 김제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김제시가 정보화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지난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사전경진대회 개인전 5개부문에서 사업계획서 발표분야에서 백구면 김제참오디농장 정민익씨가 최우수상을, 페이스북라이브방송 분야에서 청하면 청하농원 이은주씨가 우수상을, 개인UCC분야에서 황신면 하민농장 정순희씨가 장려상을 받는 등 본경진대회 단체전인 상품톤칭, 정보화우수사례, 단체 UCC, 상품전시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정보화 실력을 발휘하여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정보화농업인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별 상품홍보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간편식 경진, 온라인 시대의 관로개척과 타깃마케팅이란 주제의 특강, 우수정보화 사례발표, 정보화농업인의 일상을 표현한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정농(조도현)회장은 이날 행사를 "농업인들은 저마다의 정보화 실력을 겨누는 도전의 장이 되었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농가 소득을 올리려는 김제정보화농업인들의 마음들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과정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년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김제시 정보화 농업인 연구회(회원 50명)에 자율 가입, SNS 마케팅 및 정보교환 등 매주 화요일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극복 주간 캠페인 및 홍보행사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치매극복 주간으로 정하고 캠페인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

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는 '치매,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행사에는 치매극복을 위한 무료 치매선별검사, 치매전문상담, 치매극복 체험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사거리를 시작으로 치매파트너인 '단비'인형과 함께 치매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